

한국인의 문화의식 변천조사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유교적 여성관념 더 고수

이렇다 할 변혁기 없었고, 남성중심 사회 유지에 기여했기 때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인 여성관념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이 왜곡됨으로써 여성억압적인 현실을 만들고 말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성균관대 김원용 교수(신문방송학)의 '한국인의 문화의식변천 조사'에 따르면, 중국사람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인 여성관념을 훨씬 더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정조'나 '3종 4덕'에 관해서 중국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이 높았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이 훨씬 높았다.(도표참조)

또 '부부유별'에 관하여, 양국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지만, 부정의 정도가 중국사람들에 게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 원인에 대해 김원용 교수는 "중국의 경우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유교적 가치관이 부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렇다 할 변혁기를 거치지 않은 데다, 유교적인 덕목이 남성중심 사회를 유지하는 데 상당부분 기여했기 때문에 충실히 유지돼 왔다."고 말했다.

한편 '동방문화연구원'의 유승국 원장은 이 연구결과에 나타난 중국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서 동양사상에서 강조하는 '음양의 이치'가 결코 '순종적인 여성상'을 강조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유승국 원장에 따르면, 여성의 3종은 봉건사회에 부합되는 관념

으로 오늘날에는 비현실적이지만, 4덕(여성이 지녀야 할 네 가지 덕목: 조심스런 언동, 후덕한 마음씨, 아름다운 자태, 섬세한 솜씨)의 경우, 남녀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성들이 좀더 등한시하기 쉬운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강조되는 덕목(정직, 준수, 결백, 중용) 등이 있음을 추가로 설명하였다.

또 '부부유별'에 관해서는 "상호보완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며 "진정한 '합'(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별'(존경)이 필요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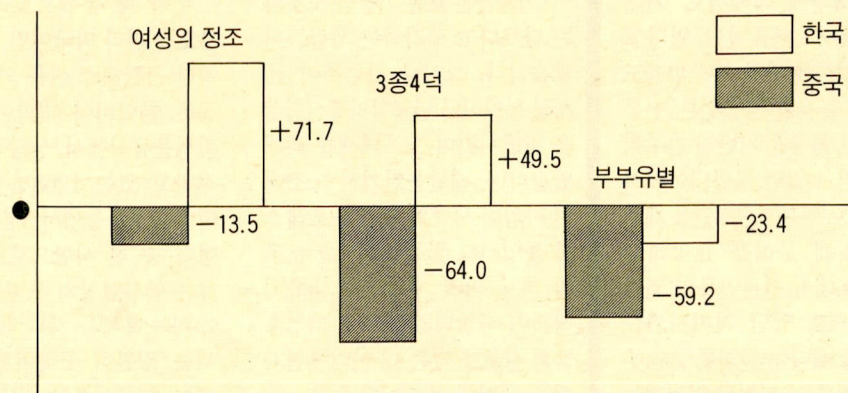
한편 '정조'는 남녀 모두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이 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남존여비의 풍조가 남아 있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위치에 대한 덕목들이 확대해석되거나 왜곡됨으로써 남성의 '지배적'인 위치를 은연중에 공고히했다는 것.

이에 대해 이운구 교수(성균관대 동양철학)는 "전통적인 관념

중 상당부분은 그 시대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는데 자기 위치를 유지하려는 사람의 지배논리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 "좋은 덕목보다는 바람직한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1세기를 향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이 적용될 소지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전통적인 관념이 갖는 바람직한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몸에 잘 길들여진 전통사상을 일시에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여성관념을 창조적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여성관을 바로잡고,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성의 위치에 대한 전통사상의 인식 비교 (수치는 긍정과 부정의 차이)